

Japan Weekly Digest

2012. 9. 15 ~ 2012. 9. 21

① 주간 경제 초점

- 일·중 경제마찰 영향

② 산업 및 통상 전략

- 일본은행, 추가 금융완화 실시
- 일본 제조업의 20%가 엔고 지속 시, 임금·고용조정 실시
- 일·중 분쟁을 계기로 본, 일본의 對中 금융협력과 對韓 금융협력

③ 일본기업의 협력 동향

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



협회 한일경제협회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자료제공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2-3014-9888)

① 주간경제초점 : 일·중 경제마찰 영향

□ 일·중관계의 악화 영향, 양국 경제관계에 파급

- 영토 분쟁을 도화선으로 한 일·중 관계 악화의 영향이 양국간 경제관계에 파급되고 있음.

① 무역 및 무역외 거래

- 중국소비자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중국내 일본 현지법인들의 수익 감소, 일본기업들의 대중수출이 감소하고 있음.
- 이에 더하여 중국내 통관검사가 강화됨에 따라 일·중 무역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중국인들의 일본 방문·여행 감소로, 일본의 대중 무역외수지가 감소하는 한편, 일본 내 소매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음.

② 투자

- 중국내 반일 데모 등으로 일본기업들의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 역시 현지법인 수익을 감소시킴으로써 기업의 수익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편, 일본으로부터의 부품수출에 영향을 미쳐 대중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 나아가, 그렇지 않아도 중국내 인건비 상승 등의 투자환경 악화로 제 3국으로 투자처를 대체하는 이른바 「china+1」 투자전략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③ 경제협력

- 무엇보다도 각종 일·중경제교류 행사의 연기가 잇따르는 등 양국간 경제교류 향방이 불투명해지고 있음.
- 상해에서 개최예정이었던 환경기술전(일·중 그린 엑스포)이 연기되는 한편, 26

- ~28일 기간 중 예정이었던 수출상품박람회는 일본 측 지자체가 출전을 취소함.
- 22~28일로 예정된 일·중경제협회의 방중단도 상해와 산서성을 시찰하기로 한 일정중 3일간 일정이 중지되고 북경 방문일정도 조정됨.
- 다만, 일·중국교정상화 40주년 기념행사는 예정대로 27일 실시하기로 함.
- 한편, 중국 상무성 보도관에 의하면, “중·일간 경제·무역관계에 불리한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 금년 중 교섭을 목표로 사무레벨에서의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한·중·일 FTA 준비작업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①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일·중 관계 악화에 따른 양국간 경제마찰이 장기화되는 경우, 일본으로서는 최대 수출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 등으로 경기가 위축됨으로써, 하반기에 기대했던 수출의존형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특히, 기계 산업과 부품·소재산업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대중투자와 관련해서는, 생산거점으로서 중국의 이점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생산거점의 이전 포기에 따른 타격은 상대적으로 적음.
- 그러나 최근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보고 투자하는 유형의 대중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직접투자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중요성은 여전히 매우 큼.
- 이 밖에 직접투자 수익, 특허사용료, 여행수지, 여객수송 관련 등의 면에서 마이너스 영향이 예상되고 있음.

②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미국·유럽기업의 들의 대중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일본기업의 중국탈출 가속에

따른 타격이 예상된다.

- 특히, 외자도입으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지방도시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
- 부품·소재 등 중국이 일본제품 수입을 중단하는 경우,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의 지위 자체가 흔들림
- 일·중간 무역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 176억 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클 것임.
- 게다가, 중국은 1997년 이후 유지해온 바오바(保八) 연평균 8% 이상의 성장정책을 포기할 정도로 경기둔화에 시달리고 있는 점은 피해의 정도를 더욱 키울 것임.

□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한국으로서는 일본·중국이 보복성 대응으로 치닫는 경우, 중국과 일본의 수입선 전환 등으로 일시적으로나마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은 있음.
- 그러나 이보다는 일·중 경제관계의 악화로 양국 경기나 성장을 감속되는 경우, 결국 그 주름살이 우리 경제에도 파급되어 제 1위, 제 3위의 수출상대국인 중일에 대한 수출증가가 여의치 못할 수 있음.
- 더욱이 중국경제에 대한 영향과 관련해서는, 최근 중국경제가 과잉투자 상태에 있고, 중국의 투자수요와 우리의 대중 수출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일·중 경제관계 악화로 인한 중국경제의 감속은 우리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일본경제신문에 의하면, 중국의 투자가 1% 감소하는 경우, 한국의 GDP를 0.6% 포인트 떨어트린다는 시산결과도 있음.

② 산업 및 통상 전략

□ 일본은행, 추가 금융완화 실시

- 일본은행은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융완화를 결정. 자산매입기금 10조원을 늘려 80조 엔으로 증액하는 동시에 자산매입기한을 2013년 6월에서 12월까지 연장기로 함. 또 장기국채와 사채 매입 시 0.1%의 하한금리도 철폐하기로 결정.
- 중국 등 해외경기 부진으로 경기침체·물가하락 우려가 강하다고 판단한 것임.
- 자산매입기금 증액은 금년 4월 이후 처음임. 정책금리를 0~0.1%수준으로 하는 사실상 제로금리정책은 유지.
- 금리 하락으로 채권가격이 상승. 금융기관으로서는 보다 높은 가격으로 일본 은행에 채권 등을 팔 수 있어 국채를 처분하기가 쉬어짐.
- 경기판단에 대해서는 중국경제의 회복 지연 등을 배경으로, 해외경제가 보다 감속되고 있다고 우려와 함께, 국내 경기회복세가 한풀 꺾이고 있다고 보고 있음.
- 앞으로 경기향방에 대해서도 경기가 답보상태에 있다는 식으로 하방수정
- 일본은행은 지금까지 지진 부흥 등으로 내수가 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중에, 수출이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 같은 시나리오의 수정이 불가피 해짐. 일본정부도 9월 월례경제보고에서 2개월 연속 경기판단을 하방수정 한 바 있음.
-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결정은 최근 미국과 유럽이 대규모 금융완화책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이를 따라가는 모양세로, 미국·유럽과의 완화경쟁에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 자칫 엔고가 가속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임.

- 일본은행 내에서는 당초 10월 이후 추가완화의 가부를 판단할 생각이었으나, 물가상승률 1%를 목표로 하는 사실상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선택한 것임.
- 7월 소비자물가상승율이 전년 동월 대비 -0.3%로 디플레이션 탈피가 위협하게 된 데다, 해외경제의 감속으로 설비투자 등의 내수가 부진하게 되는 경우, 가일층 추가완화를 요구해 올 것이기 때문임.

□ 일본 제조업의 20%가 엔고 지속 시, 임금·고용조정 실시

- 일본 후생노동성이 각의에 보고한 2012년판 노동경제백서에 의하면, 앞으로도 엔고가 계속되는 경우, 제조업중 약 20%의 기업들이 임금·고용 조정을 실시하겠다고 응답.
- 구체적으로는 종업원의 상여금 및 소정 외 노동시간 삭감을 검토하겠다는 것
- 비제조업에서도 9.2%의 기업의 기업들이 엔고가 지속되는 경우, 임금·고용 조정을 실시하겠다고 응답.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초 엔고의 장기화가 개선속도를 늦추고 있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음.
- 제조업에서는 전자부품 등의 업종에서 신규 구인배율이 저하되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 면에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 비정규 노동시장에서도 엔고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의하면, 기업들이 엔고를 이유로 임시·계약사원의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고용조정금의 이용 상황도 2012년 들어 증가경향에 있음.

□ 일·중 분쟁을 계기로 본, 일본의 對中 금융협력과 對韓 금융협력

- 최근 중·일 관계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중·일간 금융협력은 유지하기로 함. 이는 독도 문제를 계기로 한 한·일관계의 악화로 한·일 금융협력이 중단될 뻔 했던 상황과는 대조적임.

- 아즈미 일본 재무상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중·일 금융협력에 대해, 원래상태로 돌아가거나 중단할 생각은 없다고 밝힘. 센카구도(중국명 다오위다오)의 영유권을 둘러싼 중·일 관계는 악화되고 있으나, 금융협력은 유지할 생각을 표명, 얼마 전 재검토를 시사했던 한·일 금융협력과는 차이가 있음.
- 일본과 중국은 작년 12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금융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 엔·위안화의 직접거래 확대와 일본정부의 중국국채 매입, 위안화표시 채권시장 육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음
 - 이중, 엔·위안화의 직접거래는 금년 6월부터 동경과 상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타 항목도 준비 중임
- 일본으로서 중국과의 금융협력은 동경시장의 세계적인 위상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음. 영국이나 싱가포르의 경우도, 중국과의 협력 없이는 크게 불리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위안화 거래 확대를 노린 것임.
 - 또 중국국채의 매입에 대해서도, 중국국채를 보유함으로써 중국정부로부터 경제정보를 입수하기가 용이한 효과도 감안한 것임.
- 중국에 비하여 한국과의 금융협력은 한·일통화협정 정도인데, 한국 측의 요망으로 700억 달러로 확대했으나, 원래는 기간 1년의 임시조치로 한·일관계가 악화되기 이전부터 “시기가 오면 당초의 130억 달러로 돌아가고 싶었다”고 일본의 당국자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임
- 한편, 중국은 3조 달러의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으로서 중·일 통화교환한도도 30억 달러로 아시아역내 2국간 협정에서 최저수준임. 일·중간 무역총액도 약 27조 엔으로 한·일간 무역의 3.2배, 일본의 대아시아무역에서도 30%의 비중을 점하고 있음.

③ 일본기업의 협력동향

일본기업	발표일자	업종	대상국가/기업	사업형태/내용
쇼와산업	2012.9.15	제분	베트남/인터믹스	직접투자/30%출자, 투자규모 약 1억엔
서일본여객철도	2012.9.15	철도	스페인	기술교류/FGT(계간가변열차) 도입에 대비, 스페인 국철의 노하우 취득
혼다	2012.9.16	자동차 엔진	인도네시아	직접투자/디젤엔진공장 신설
혼다	2012.9.16	자동차	브라질	직접투자/소형차 공장 건설
르네사스	2012.9.17	반도체	독일/텔FP퐁켄 세미컨덕터	생산제휴/마이크로생산을 위탁
히타치	2012.9.19	철도	브라질/IESA	자본제휴/도시형모노레일건설을 위한 합작기업 설립
NTT	2012.9.19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컨설팅	미국/센터스탠스	직접투자/기업매수, 매수가 약 40억엔
퍼스트리테일링	2012.9.19	의류판매	호주	직접투자/현지법인 유니클로 1호점 설립
프레스공업	2012.9.19	트럭부품	인도네시아	직접투자/프레임 생산공장 신설, 투자규모 약 25억엔
다이와 하우스	2012.9.19	건설	베트남	직접투자/공장 및 물류시설 건설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일본전산	2012.9.20	중대형 모터	미국/케네틱, 애브트론·인더스트리얼·오토메이션	직접투자/2개 기업매수, 매수가 약 400억엔
미쓰이물산	2012.9.20	가스	멕시코/GNM	직접투자/15%출자, 투자규모 약 74억엔
동해고무	2012.9.20	자동차용 호스	인도네시아	직접투자/공장건설, 투자규모 약 19억엔
유니프레스	2012.9.21	자동차부품	브라질/마뉴에트 오토모티브 브라질	자본제휴/합작투자, 40%출자, 추가 투자규모 약 50억엔

* 자료: 일본경제신문기사에서 정리

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

- (1) 『일본재생전략이 상정하는 산업취업구조 : 저출산·고령화, 글로벌화로 의료·복지·서비스, 가공조립제조업이 견인』 제일생명경제연구소, 9월15일

*출처:http://group.dai-ichi-life.co.jp/dlri/naga/pdf/n_1209a.pdf

- (2)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안)』 국가전략실, 9월15일

*출처:<http://www.npu.go.jp/policy/policy09/pdf/20120914/shiryō.pdf>

- (3) 『2012년판 노동경제 분석(노동경제백서)』 후생노동성, 9월15일

*출처:<http://www.mhlw.go.jp/wp/hakusyo/roudou/12/>

- (4) 『일본경제전망 : 일본의 수출경쟁력 검증, 독일의 브랜드력, 한국의 마케팅력』 다이와종합연구소, 9월21일

*출처:<http://www.dir.co.jp/souken/research/report/japan/monthly/12092001monthly.pdf>